



깨어져야 농업이 산다

■ 장재우 /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 농민들 모두는 농업이 어렵다고 말한다. 또 농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겉모습만 보아도 농업과 농촌은 활기를 잃은 채 메말라 가고 있다. 생산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농가 인구도 계속 줄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을 이루는 쌀 농업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국내적으로는 쌀 소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감소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쌀 재고가 쌓여 재고를 관리하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자유무역의 강화로 2004년 이후 쌀 수입은 자유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값싼 쌀이 수입되어 국내 쌀값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직시·진실해야 과거 우(愚) 범하지 않아

이러한 상황은 조금이라도 국제적 감각을 지닌 농업인이었다더라면 일찍이 예견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러

한 엄청난 사실들을 앞에 놓고도 문제 감추기에 급급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쌀만은 지키겠노라고 선언했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주장은 변함이 없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 무엇이 숨겨져 있다. 우리나라 농업의 먼 장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아우성치는 농민들부터 달래 놓고 보자는 근시안적 발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농민 표를 잃을까봐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폭우가 쏟아질 것을 기상청이 예보하고 있는 데도 농민들의 동요가 무서워서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어려운 농업 현실을 앞에 놓고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의 정부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가을 추수기만 되면 농민들의 동네북이 되는 현 정부의 모습 또한 그것이 아닌가. 이 때문에 농촌지역 공무원들은 수매 철만 되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우리 모두 솔직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다. 솔직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게 되면 언젠가는 그 실체가 드러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사실이다. 병세가 악화되어 더 이상 처방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愚)를 범하기 전에 정부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실을 밝혀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고소득작목 무한, 그릇된 쌀 신앙 버려야

그러면 중병에 걸린 우리나라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고정관념을 깨뜨릴 필요가 있다. 그릇된 고정관념 때문에 농업문제가 더 꼬이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쌀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왜 그런가. 하

나는 국민들의 에너지 섭취원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식량이 탄수화물에서 단백질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에너지는 거의 대부분을 곡물을 통해 얻어왔다. 그 중에서도 쌀이 가장 중요했다. 1980년 탄수화물 의존도는 70%를 넘어 80%에 달했다. 그 가운데 쌀은 약 50%를 차지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2000년에는 탄수화물 의존도가 65%로 뚝 떨어지고 있다. 쌀 의존도 역시 31%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식량으로서 쌀의 중요성이 그만큼 저하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에 단백질과 지방 의존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22%에서 34%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육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량이 쌀에서 육류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식량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면 식량을 생산해 내는 농업 역시 변해야 한다. 에너지원이 곡물에서 육류로 변하고 있기 때

“

**‘농업’ 가공·유통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산업, 비관 일관자세 안돼
근시안적 발상이 오늘의 현실 초래, 고정관념 깨야 우리농업 살아**

”

문에 쌀 생산은 줄이고 국민들이 선호하는 고기나 사료작물 생산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쌀 생산에 투입되던 농업자원 역시 육류나 사료생산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농정은 이와 같은 식량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옛날 그대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쌀은 남아 돌아가 재고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반면 육류나 사료는 모자라 외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해다 먹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는 쌀의 소득이 가장 높다고 하는 그릇된 신앙이다. 쌀은 그간 정부가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시장가격을 높혀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고 또 소득 역시 안정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쌀만 재배하면 한해 농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쌀 소득은 다른 작물에 비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또 장기적으로는 쌀값이 올라갈 가능성도 없다. 오히려 앞으로 쌀값은 더 떨어진다. 따라서 쌀에 대해 미련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농업관련 조사결과를 보면 쌀보다 소득이 높은 작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과거 10년 간 주요 작물들의 10a당 소득을 보면 쌀은 20위권 내에

도 들지 못한다. 대신에 들깨잎이나 시설딸기, 시설오이, 시설고추 등은 쌀보다 몇 배 높은 소득을 가져다 주고 있다. 쌀보다 높은 소득작물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쌀 생산은 줄이고 소득이 높은 대체작물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대체작물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면 최소한 이모작이나 삼모작을 장려하여 토지이용율을 최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30%를 밑도는 식량자급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면서 농가소득을 현재수준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농지이용 위해 법률 개정해야

둘째, 농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량에 대한 선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농업자원 역시 쌀에서 다른 작물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농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다. 예를 들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논에는 쌀 이외에 어떤 다른 작물을 심을 수가 없다. 축산이 소득이 높더라도 논에다 축사를 지어 가축을 기를 수도 없다. 과수나무도 재배할 수가 없다. 물론 최근에는 약간의 법률개정이 있어 어느 정도까지는 다른 작물의 재배가 허용되고 있으나 아직

까지도 규제완화는 미흡하다. 이 모두가 농지를 쌀 농사에 맞추고 있는 정책 때문이다. WTO가 추구하는 자유화는 규제와 간섭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농업도 규제와 간섭을 대폭 줄여나가야 한다. 최소한 농업의 범위 안에서라도 자유롭게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대폭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 높은 고품질농산물로 공략

마지막으로 농업은 생산만이 아닌 가공과 유통까지를 포함하는 폭넓은 산업이라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농업의 범위를 너무나도 좁게 생각해 왔다. 종자를 심어 열매를 거두는 산업 정도로 생각해 왔다. 다시말하면 농업을 단순히 생물학적 개념으로만 이해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농업은 생물학적 개념을 포함해서 가공과 같은 화학적 과정, 유통과 같은 경영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면 우리나라 농업은 길이 보이게 된다. 그리고 농산물 수입 자유화도 그리 무서울 게 못된다.

유럽의 네델란드를 보자. 네델란드는 꽃으로도 유명하지만 햄이나 소시지와 같은 축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다. 그러나 수출되는 축산물의 내용을 보면 생축이나 원료의 형태로는 수출하지 않는다. 6~70%가 원료농산물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가공품들이다. 부가가치를 높혀 높은 값을 받고 팔고 있는 것이다. 또 네델란드는 농산물 수입자유화를 적극 활용하여 원료 농산물을 값싸게 드려와 그 이득을 톡톡히 보고 있다. 네델란드도 원료 농

산물이나 사료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 자유화를 통해 원료 농산물을 이웃 덴마크나 영국 등지에서 값싸게 드려와 이를 가공하여 3배나 4배의 높은 값으로 되팔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 수입 자유화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잘 활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인 것이다.

우리들은 중국 농업을 두려워하고 있다. 물론 농산물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워할 것도 없다. 중국의 값싼 농산물을 원료로 활용한다면 우리나라도 가공 농산물의 생산비를 낮추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관세가 낮아지고 수송비용이 절감되어 원료 농산물 구입비용이 대폭 감소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값싼 원료 농산물을 이웃 중국에서 들여와 이를 가공하여 중국에 되팔면 된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중국은 시장이 넓다. 중국의 소득이 낮아 가공품과 같은 값비싼 물건이 팔릴까하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우리나라 소득 수준 이상을 누리는 고소득층이 수천만이나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농산물로 이들을 공략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는 강화된 경쟁력으로 일본이나 미국에도 수출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농업을 너무나도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선진 농업국들이 어떻게 농업을 이루어 왔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농업이 살아나갈 길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기회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주지만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적극 찾아 나서야 할 때다. **농약정보**